

브라질 은행 순위 변동 등 은행권 동향 조사

1. 은행간 통합에 의한 순위 변동

- Banco do Brasil(BDB)이 작년 Banco Itau와 Unibanco의 통합으로 잃었던 업계 1위의 지위를 금년 상반기에 Nossa Caixa 과 Votorantim은행에 대한 출자에 의해 다시 수위를 차지
- BDB를 비롯한 브라질의 5대 대형은행은 브라질 전체 은행 총자산의 67%, 예금의 76%, 순자산 59%, 순이익의 69%를 차지하고 과점체제를 유지 중
-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관한 국제기준인 바젤 지수(BIS규제)는 국제최저 수준의 8%이며, 브라질 중앙은행이 정한 11%를 5대 은행들은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저리스크 은행으로서 평가됨

<표1>

상업은행 순위 (총자산 기준)

단위: 억 real

은행명	총자산	예금	자기 자본	순이익	자기자본비율(%)
1.Banco do Brasil	583.3	311.0	33.1	4.0	15.7
2.Itaú-Unibanco	576.6	198.4	48.2	4.6	16.9
3.Bradesco	426.0	169.9	37.7	4.0	17.8
4.Santander	332.6	122.3	49.9	1.0	25.9
5.CEF	323.7	175.9	13.5	1.2	18.8
6. 기타	654.1	229.2	73.7	4.5	미공표
50대 금융기관	2,896.3	1,206.7	2561	19.3	미공표
기타	457.5	73.7	55.2	2.0	미공표
합계	3,353.8	1,280.4	311.3	21.3	미공표

출처 : 중앙은행

## 2. Santander 은행의 증자

- 스페인 자본의 Santander은행은 50억 유로 (73.4억 달러 상당) 규모의 증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10월중 실시할 전망
  - 아울러 공개 후 시장 가격상황을 보아가며 추가공개의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증자규모는 8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Santander 은행이 자본공개 될 경우 이 은행의 시가총액은 828억 real ~ 966억 real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Itau-Unibanco의 1411억 real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Banco do Brasil(765억 real), Bradesco(959억 real)을 상회할 가능성
  - Santander는 2013년까지 브라질 국내에서 600점포를 추가로 개설하여 2091지점, 1521점포의 서비스 거점으로 확장하며 전국에 21백만의 법인·개인 고객을 확보할 계획
  - 특히 Santander는 그룹 산하의 5사, Visanet, Visvale, Serasa, Visa, Tecnologia Bancaria S/ A의 자본공개도 예정

<사용과울루 사무소 제공>